

渤海의 上京과 中京, 그 役割과 意味

The Upper Capital(Sanggyung) and the Center Capital(Junggyung) in Palhae, it's role and meaning

具 蘭 熹(韓國學中央研究院)

- I. 들어가는 말
- II. 5京制의 형성과정으로 본 上京과 中京
- III. 遼·金에서의 上京의 역할과 지위
- IV. 발해의 上京과 中京 지역
- V. 글을 맺으면서

I. 들어가는 말

渤海의 上京과 中京은 고고발굴 성과와 함께 많은 논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에서는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인해 중국측의 특정 발굴 성과가 공개되면 그 때마다 해당 지역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의 연구 환경에 따라 연구 대상이 쏠림에 따라 상경과 중경은 해당 발굴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별개의 독자 단위로 연구되었고 그 결과 발해 당대에도 양자가 제각각 독자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한정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상경과 중경은 사실상 발해가 존속했던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5경제의 틀 속에서 병존하고 있었다. 상경은 오랫동안 수도로서의 역할을, 중경은 상경에 수도의 기능을 넘긴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역으로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결국 양자는 일정한 연계 분업 구조를 가지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 발표는 이러한 문제에 해답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이미 중경에 관심을 가졌던 선행 연구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특별히 발표자는 요와 금의 5경제를 살피는 가운데 이들 왕조의 상경과 중경의 역할 구

조를 파악하게 되었고¹ 이제 이 글은 그 연장선에서 발해의 상경과 중경의 역할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이 발표는 앞 부분에서는 요, 금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발해사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의 지점을 잡아보고자 한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의 해석 지점의 구도 위에 발해 상경과 중경을 다루되, 특별히 상경과 병존하면서 다른 역할을 담당했던 중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5京制 형성과정에서 본 上京과 中京

5京制는 渤海, 遼, 金 왕조에서 운영되었다. 金은 1138년 이후 6경제가 운용되지만, 발해의 5경제에 영향을 받은 요의 5경제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보아 5경제가 시행된 왕조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발해의 지방 관제는 크게 府-州-縣의 3단계 체제를 근간으로 편제되어 있다. 부주현의 최고 단위인 부는 경이 속해 있는 京府와 藩府의 이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5경은 최상의 별도 지위로 설정되고 있다.²

이러한 5경의 구조가 그 형성과정과 운영에 대한 다소의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5京制 그리고 그 아래 上京과 中京을 두었던 요와 금의 체제와 비교해 본 바 있다.

遼의 5경은 최고 단위로서 전국을 아우르는 5京道の 중심이 된다. 즉 전국을 5京道로 구획하고 그 근간 속에 府, 州, 軍, 城을 편성하고 다시 그 아래 현을 두고 있다.³

¹ 구난희, 「발해, 요, 금의 오경제와 상경」 『선사와고대』 45, 2016.

² 이와 달리 당의 지방 관제는 10도(道)가 최상위였으며 그 아래 부가 편성된다. 전기에는 주현의 2단계 체제로 운영하다가 안사의 난 이후 주(州) 위에 도(道)가 새로운 관제로 부상하여 도주현의 3단계 체제로 개편된다. 한편 주와 동일한 급이지만 특수적 지위를 갖는 단위로 부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5경은 부 단위 특수 지역으로 배치되어 있다.(『舊唐書』 38, 志 18 및 『舊唐書』 41, 志 21. 『新唐書』 37, 志 27 및 『新唐書』 43上, 志 33上.)

³ 물론 이는 遼史 地理志를 근거한 것이다. 요사의 찬자인 脫脫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金史와 함께 집필함에 따라 많은 오류와 누락이 있다는 점이 비판되고 있으며 특히 지명간의 불일치도 제기되고 있다(김위현, 2009, 「요사연구의 문제점과 연구방향에 대하여」 『거란연구의 현황과 연구방향』, 한국몽골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쪽). 주부군성과 현의 편제도 탈탈이 자신이 본 원(元)의 상황을 투영하여 중원식 제도 운영을 사실 이상으로 과잉 기술하였다는 점을

이는 요의 5경제가 갖는 특성이다. 다만 주와 현은 여러 층위가 혼재하고 있어서 일원화된 상하적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주 내에는 上等, 中等, 下等으로 구분되는데 중등주와 하등주 가운데는 상등주에 속하는 경우도 있어 중층구조를 이룬다. 京府의 장관으로 留守를 두었는데 각 주의 성격에 따라 節度使, 觀察使, 防禦使, 刺史를 두었다. 유수는 주로 거란 황족이나 충신들이 담당하였다. 또한 縣의 경우도 상등현과 하등현이 있으며 상등현은 주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는다.

요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의 지방 관제는 전국을 5경이라는 큰 틀 내에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곧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지방 관제와 도를 증치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5경도로 확장 편성해 왔음을 반영한다. 5경의 설치 과정을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초기 2경제로부터 5경제가 안착되기까지는 무려 120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금의 6경제도는 요의 5경 제도를 답습하였는데 이후 영역 확대와 함께 부분적인 조정을 반복하였다. 금의 지방 관제는 크게 路-府-州-縣의 4단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수 지역에는 현에 상응하는 城, 堡 塞과 같은 특수 행정 구역을 두었다.

그런데 금의 19路는 요와 달리 6개 京路와 13개 蕃路로 이원화되어 있다. 경로의 경우 유수사와 안찰사가 있어 각각 정무와 사법 감찰을 담당했다. 군사 업무는 도총관이 담당했다. 반면 번로의 경우는 총관부가 담당했다. 京府의 운영은 遼와 유사하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해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中都에는 유수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5경제도에 추가 편성되면서 이전의 것과 체제를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고 수도의 기능에 집중한 특수한 체제가 설치된 때문일 수도 있다.

6경은 19로의 하나인 동시에 하부의 부 단위와도 연계되어 있다. 6경이 19로 가운데 편제되었다는 점에서 발해의 5경이 15부의 일부로 형성된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지방 관제가 완비되기 이전에 이미 6경의 틀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금의 5경이 요의 5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사실로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발해의 5경 또한 15주 형성 이전에 안착되었다는 입장을 뒷받침해 줄만 하나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6경이 독자적인 최상위 지위를 갖지 않고 다른 번로와 병치되고 있다는 점이나

제기하기도 있으므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주현명칭을 고찰한 결과 실제 부주 175

북경로, 남경로와 같이 하나의 경로 안에서도 복수의 부가 편성된 점 등 새롭게 변용된 부분도 있다.

이상 발해의 5경제 운영 구조를 요, 금과 비교해 보면 발해는 금과 유사하고 요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5경의 성립 과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해 볼만하다. 즉 발해와 금의 경우는 기존의 지방 지배 질서 위에서 5경이 먼저 정립된 연후에 관제가 확대 정비된 반면, 요는 영역 확장과 함께 5경이 순차적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보면 발해가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것은 단순히 수도를 옮긴 것만이 아니라 중경이 수행하던 복합적 기능을 분산하여 상경과 중경에 분산 배치하여 각각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한 새로운 재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경 천도에 대해서는 말갈계족의 효율적 관리, 안사의 난에 따른 안전 확보, 사회발전에 따른 지역 확대 등 이미 선학들의 의미있는 논고가 제시되었으며 발표자는 이를 넘어서는 다른 각별한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기존의 중경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송두리째 상경으로 옮겨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상경 천도 후 중경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Ⅲ. 遼·金에서의 上京의 역할과 지위

중경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상경과 다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발해와 마찬가지로 5경 체제를 유지한 요와 금의 상황으로부터 몇가지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한다. 비록 이들은 발해 이후에 존속한 왕조이나 5경제를 존속기간 내내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발해의 체도를 계승한 것이라는 점, 여기에다 3국 모두 광대한 영토를 형성한 제국이었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요·금의 상경과 중경 운용의 특성으로부터 발해의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닐 것이다.

개, 현 218개가 확인된다.

다만 요와 금은 발해와 달리 상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중원 지역을 장악한 후 중경을 수도로 삼았다. 중경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상경을 수도로 삼은 발해와는 상경과 중경이 완전히 환치된 상황이다. 따라서 발해의 중경은 그 성격상 요, 금의 상경과 유사하고 발해의 상경은 요, 금의 중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요, 금에서 상경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遼에서 상경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것은 四時捺鉢이다. 捺鉢이란 황제의 行宮을 뜻하는 거란어를 음차한 한자어이다. ‘사시’ 낱말은 ‘春水秋山 冬夏捺鉢’을 합하여 이르는 말로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즉 주요 대신들이 함께 특별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국사를 논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행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요는 동계, 하계 낱말 때는 영지로 이동하여 활을 쏘고 사냥하는(射獵) 등 거란 전통의 유목적 풍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동계 낱말의 경우 혹한의 환경을 함께 이겨내면서 최고 수뇌부의 정치적 결속을 다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낱말 지역이 대체로 상경 일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경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하계의 낱말지역은 전 시기에 걸쳐 단연 상경 지역이 중심지가 되었다. 다만 동계의 낱말지역의 경우 성종 이후 중경 일대가 상경 지역보다 다소 많은 빈도를 차지하게 되지만⁴ 여전히 상경 지역은 주요 낱말지로 활용되고 있다.

성종 이후 중경 지역이 동계 낱말지로 자주 활용된 데는 상경지역에서 낱말을 행하는 것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중경에서 낱말이 이루어지면서 동계 때 직접 송의 사신이 낱말지역에까지 내방하여 요 황제를 친견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동계 낱말지를 중경으로 삼은 데는 낱말에 따르는 부담뿐만이 아니라 송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정치적 의미가 고려되어 중경 낱말의 빈도가 증가하게 된 것은 아닐까? 좀 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는 추후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다시 상경문제로 논의를 되돌리면 중경 천도 이후에도 상경은 낱말 지역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상경이 거란의 근본지라는 상징적 의미와 이를 통한 응집력

⁴ 諸葛淨, 「論遼之京城體系」, 『華中建築』 27, 中南建築設計院·湖北土木建築學會, 2009, 145~147 쪽..

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상경의 역할과 기능은 金代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金 또한 중원 지역에 대한 확장으로 中都 천도가 불가피하였지만 자신들의 본향이자 정신적 근거지인 상경을 경시할 수는 없었음은 요와 마찬가지로였다. 금의 상경 보존은 요와 달리 내부 갈등 속에서 재정리되었다. 海陵王은 중원문화의 애호가로 여진 내 유력자를 제거하고 한족을 중용하여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1153년 상경을 폐지하고 수도를 燕京으로 옮기면서 上京(會寧府)의 많은 시설을 파괴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신료들의 반발을 야기시켰고 결국 그는 남송 정벌을 단행하던 중 부장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海陵王이 시해된 후 즉위한 世宗은 본격적으로 女眞本土化를 추진하면서⁵ 곧바로 상경을 복치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금 왕조에 있어 상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금의 5경제가 6경제로 변형된 주요 원인이 상경의 복치라는 점은 상경에 대한 인식과 비중이 얼마나 지대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해릉왕 당시 전력을 기울여 中都로 遷陵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경에는 여전히 여러 宗廟가 집약되어 있었으며 轉運司, 按察司, 留守司, 提刑司, 宣撫司 등이 두루 배치되었다. 금말 전국에 50여개의 행성을 설치되었는데 이 중 동북지역에 설치된 20여개의 상경행성 소관의 관인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상경이 추상적 상징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⁶

이처럼 상경은 가장 넓은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는 절대적 비중과 함께 금조의 발원지이나 주변제족과 접경하는 관문으로서의 기능, 견고한 후방의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왔다⁷. 요와 마찬가지로 국세가 확장되면서 국가적 구심체로 중도를 설정하였지만 상경은 민족적 구심체로서 여전히 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⁵ 三上次男, 「金代中期における女眞文化の作興運動」, 『史學雜誌』 49-98, 1938; 陶晉生, 「金代中期的女眞本土化運動」, 『邊疆史研究集-宋金時期』, 臺灣商務印書館, 1999, 51-56쪽.

⁶ 王禹浪·王宏北, 「女眞族所建立的金上京會寧府」, 『黑龍江民族從刊』 91, 黑龍江省民族研究所, 2006, 64쪽.

⁷ 韓鋒, 「金上京城市建設」, 『黑龍江史志』 232, 2010, 214쪽.

IV. 渤海의 上京과 中京 지역

상경 천도 후 중경의 역할과 지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상경 지역과 중경 지역의 구조와 특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아래는 지금까지 발해 유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양 지역의 성곽과 고분의 분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본 패널의 발표자가 공동집필한 『발해유적사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가운데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나마 유적 현황이 각급 문물지나 발굴 보고가 이루어진 곳으로 이 책의 수록 항목으로 본문에 집필된 유적지이다. 나머지는 대략의 위치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집필하지 못했고 추후 조사대상지로 부록에 담은 유적지이다.

(표1) 상경과 중경지역의 주요 성곽

上京 地域	寧安市 30	江東長城, 江邊圓城, 鏡泊湖長城, 南湖頭古城, 大牡丹古城, 大牧丹古城, 岱王山城, 東溝屯古城, 東崴子古城, 東漢古城, 北營城子古城, 上京城, 上官古城, 上屯古城, 西營城子古城, 西營城子古城, 西湖嘴子山城, 城子後山城, 城牆位子山城, 勝利村城堡, 五峰古城, 牛場古城, 裕家古城, 前獨木河古城, 重唇河山城, 土城子古城, 杏花村古城, 向前屯古城, 向前屯古城
	牡丹江市 13	南城子古城, 大山頭古城, 大城子古城, 龍頭山古城, 牡丹江長城, 福興古城, 三道通古城, 五道河子屯古城, 五排山城, 烏斯渾河口古城, 卡路山城, 海浪古城, 夾心子古城
	林口縣 7	古城鎮古城, 古城鎮古城, 大山頭古城, 沿江古城, 五道河子古城, 土城子古城, 土城子古城
	海林市 11	九公里山城, 寧古臺山城, 白石位子城, 石場山城, 石河採石場山城, 石河採石場山城, 寧古臺山城, 迎門石小城, 鷹嘴位子小城, 興農古城, 興農古城
	七臺河市	古城村古城
中京 地域	汪清縣 19	鷄冠古城, 高城古城, 東四方臺山城, 東陽古城, 牧丹川古城, 北城子山城, 石城古城, 新華閣屯古城, 安田古城堡, 影壁古城, 龍泉坪古城, 蠶頭城, 轉角樓古城, 中大川古城, 天橋嶺古城, 河北古城, 幸福古城, 紅云古城, 興隆古城堡
	和龍市 13	古城里古城, 廣興山城, 西古城, 聖教古城, 松月山城, 層嶺山城, 楊木頂子山城, 蠶頭城, 獐項古城, 土城里古城, 八家子山城, 河南屯古城, 和龍境內古長城
	延吉市 7	古長城, 大墩臺, 帽兒山墩臺, 小墩臺, 煙河墩臺, 台岩古城, 河龍古城
	龍井市 12	古城村古城, 金谷山城, 大灰屯古城, 三山洞山城, 船口山城, 城子溝山城, 養參峰山城, 英城古城, 朝東山山城, 清水山城, 土城屯古城, 偏臉山山城
	安圖縣 9	寶馬城, 三道古城堡, 三道白河古城堡, 城門山山城, 新興古城堡, 仰臉山城, 五峰山城, 五虎山山城, 柳樹川古城

(표2) 상경과 중경지역의 주요 고분

上京地域	寧安市 16	南陽고분군, 大牡丹고분군, 大朱屯고분군, 東蓮花村고분군, 狼洞山고분군, 三陵屯고분군, 上屯고분군, 西石崗고분군, 西石崗고분군, 阿卜고분군, 高분군, 洋草溝고분군, 巴掌溝고분군, 風水巍子고분군, 哈達磚廠고분군, 虹鱒魚場고분군
	牡丹江市 4	江西고분군, 三道關고분군, 石場溝고분군, 敖東巍子고분군
	林口縣 5	頭道河子고분군, 北站西山고분군, 沙河子고분군, 蓮花泡고분군, 板院고분군
	海林市 6	江東고분군, 突古山고분군, 山嘴子고분군, 三道中學고분군, 長石고분군, 哈達고분군
中京地域	汪清縣 1	影壁고분군
	和藥市 10	明岩고분군, 福洞고분군, 北大고분군, 龍頭山고분군, 龍海고분군, 長仁고분군, 獐項고분군, 靑龍고분군, 河南屯고분군, 惠章고분군
	延吉市 4	南溪고분군, 新光고분군, 新豐五隊고분군, 煙河四隊고분군
	龍井市 4	三合고분군, 英城고분군, 龍岩고분군, 龍泉고분군, 草坪고분군, 灘前고분군
	安圖縣 1	龍興고분군

이상을 보면 상경과 중경은 거의 비슷한 규모로 유적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경은 문왕의 중기 통치기간인 740년대 중반부터 750년대 중반에 걸쳐 수도로 활용되었던 반면, 상경은 750년 중반부터 10여년의 동경기간(785~794년)을 제외하고는 멸망 때까지 160여년간 수도로 운영되었다. 기간으로 보면 단연 상경이 중경보다 많은 유적을 포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합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곧 상경 천도 이후에도 중경은 여전히 일정한 역할과 중요성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고성유적은 상경지역과 중경지역에서 각각 상경과 중경을 중심으로 방어체제와 치소가 집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고분의 경우는 상경과 중경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경지역에는 흥준어장고분군이 규모면에서는 단연 으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323에 달하는 많은 고분이 집중·분포되어 있으며⁸龍頭山古墳群이나 六頂山古墳群을 능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분의 구조나 구성면에서 보면 피장자의 신분이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들에 미치지 못한다. 이 지역의 고분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평민무덤으로 보는 견해⁹ 상경지역에 거주하던 토착말갈세력의 고분군으로 보는 견해¹⁰, 또는 말

⁸ 흥준어장고분군은 1960년대 유적이 발굴된 이래 여러 차례 발굴이 이루어졌다. 1981년에는 100여기의 무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1984, 1992~1995년에 계속된 발굴이 이루어져 모두 323기의 무덤과 7기의 방형 구조출 그리고 1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이 곳은 발해 고분군 중 가장 많은 무덤이 발굴되었고 다양한 유형의 무덤 구조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다만 상경과 가장 인접해있는 삼릉둔고분군, 동련화촌고분군 등이 발해의 왕실 귀족의 무덤으로 비정되는 것과 달리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무덤의 구조나 공반유물을 감안해 볼 때 발해의 관리나 부유한 신분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본다.(姜成山, 「渤海墳墓研究試論-虹鱒魚場墳墓群의檢討を中心に」, 『國際學研究』 1, 2010, 36-37쪽)

⁹ 王禹浪·孫軍, 「黑龍江流域渤海墓葬의初步研究」, 『哈爾濱學報』 11, 2007, 5쪽.

갈적 요소를 띠고 있는 비교적 초기의 것으로 상경성 축조 전부터 이 일대가 그 세력의 근거지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¹¹ 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고분군 전체 구조에 주목하여 초기유형을 I 구역에서 II 구역으로 발전하였고, 지상에 매장주체부를 둔 석실묘가 중심이며, 刀形石室墓를 거쳐 다시 鐘形石室墓로의 변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곧 매장 주체들이 점차 고급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¹² 흥준어장고분군이 비교적 오랜 기간 상경의 중심 매장지역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왕실무덤군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상경지역에서 왕실귀족급 무덤으로 비정되는 무덤이 없는 것은 아니다. 三陵屯 고분군의 경우 묘역의 조성구조, 무덤의 양식이나 사용 재료 등을 보아 왕실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며¹³, 東蓮花村 고분 역시 구조나 석재로 보아 발해귀족 이상의 무덤으로 비정된다¹⁴. 하지만 현재 발굴 상황으로 보면 매우 단일 구조로 아래에 언급할 중경의 왕실고분군과는 필적되지 않는다.

한편 중경 지역에서 발견된 龍頭山古墳群의 龍海고분구는¹⁵ 중경 지역의 특징과 역할에 매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일대는 王陵級 내지는 그에 버금가는 지위의 비중있는 고분이 발견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 발굴조사에서 문왕의 넷째 딸인 貞孝公主墓가 확인되었다.¹⁶ 2004년과 2005년에 다시 14기의 고분과 우물 1기가 발굴되었는데 아직 정식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간보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도

¹⁰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寧安市虹邊魚場墓地的發掘」, 『考古』 2, 1997; 金太順, 「渤海國社會風貌的縮影-黑龍江寧安虹邊魚場渤海墓群的考古收穫-」, 『最新中國考古大發現-中國最新20年32次考古新發現-』, 山東畫報出版社, 2002.

¹¹ 송기호,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고대 동아시아의 遷都』, 제17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국제학술대회, 2004, 134쪽.

¹² 김진광, 「흥준어장고분군의 사회적 지위 및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42, 2012.

¹³ 특히 정영진은 이 무덤의 고분벽화와 고구려 고분 벽화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무덤의 지위를 추정하였다.(정영진, 「1991년에 발굴한 삼릉둔발해벽화묘와 고구려벽화묘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16, 1994, 376-378쪽.)

¹⁴ 越哲夫·金太順, 「黑龍江省寧安市東蓮花村渤海墓葬」, 『北方文物』 2003-2, 2003, 31-32.

¹⁵ 용두산 일대는 크게 용해고분구, 석국고분구, 용호고분구로 나뉜다. 다시 용해고분구는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왕릉급 무덤이 집중되어 있는 용두산고분군 용해고분구와 용해중학교 일대의 용해고분구로 구분된다.

¹⁶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982-1.

도 흥미로운 지점이 꽤 있다.¹⁷ 3대 문왕의 皇后 孝懿皇后(M12)와 9대 簡王의 皇后 順穆皇后(M3)의 墓誌들이 확인되었다. 이들과 합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쪽의 무덤은 각각 文王과 簡王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M8과 M9, M13과 M14도 합장묘이나 구체적인 묘주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¹⁸ 상경으로 천도한 지 60년이 훌쩍 넘은 때에도 이 곳에 왕실 부부가 모셔졌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1980년 발굴조사된 貞孝公主墓의 墓誌銘에서는 ‘皇上’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¹⁹ 왕의 부인을 황후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발해 왕실의 自己正體性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內王外帝의 발해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근거가 아닐 수 없다²⁰.

이와 같이 상경과 중경의 유적 현황과 특징적 지점을 비교해 보면 상경과 달리 중경은 발해 왕실의 본향과 같은 감성을 담아내고 또 그것을 대외적 충돌없이 드러낼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경이 국가 운영의 실질적인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다면 중경은 발해 왕실의 본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지역으로 대비해 볼만하다.

V. 글을 맺으면서

발해는 다경제의 하나인 5경제를 운용하면서 수도 상경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경을 각별하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운용에 내재한 의미를

¹⁷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2009-6. 물론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묘주에 대한 언급이 있는 자료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왕묘를 달리 비정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¹⁸ 최근에는 M13과 M14가 이른 시기의 고분 양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M14를 문왕묘로 비정한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김진광,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선사와고대』 56, 2018, 66-69쪽.)

¹⁹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1982-1.

²⁰ 송기호,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38, 2010, 147-149쪽.

해석하기 위해 요와 금의 유사한 사례를 제안하고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즉 중경을 거점으로 발전하여 상경으로 천도한 발해와 상경을 거점으로 발전하여 중경으로 천도한 요금을 연계하여, 발해 중경의 역할과 의미를 요금의 상경으로부터 실마리를 얻었다.

요금은 천도 이후에도 상경을 거란족과 여진족의 본향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국가 행사를 실행하였다. 발해가 중경에서 왕실급의 무덤군을 조성하고 內帝 의식을 견지하였던 것 역시 자신들의 본향 즉 고구려 계승의식을 오래도록 간직한 것으로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금번의 발표문은 요금의 상경으로부터 단서를 구해 엮은 연구 노트에 해당할 따름이다. 발해 왕실이 중경에서 무엇을 추구하려 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된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는 상경과 중경지역의 구조와 특성 비교, 고분군의 피장자 성격 등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과제로 삼겠다.

(參考文獻)

구난희, 「渤海, 遼, 金の 五京制와 上京」, 『先史와 古代』 45, 2015.

김진광, 「흥준어장고분군의 사회적 지위 및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42, 2012.

김진광, 「발해 용두산고분군 용해구역 M13·M14 고분의 위상과 그 주인공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선사와고대』 56, 2018.

송기호, 「발해의 천도와 그 배경」, 『고대 동아시아의 遷都』, 제17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 토론회국제학술대회, 2004.

송기호,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8, 2010.

정영진, 「1991년에 발굴한 삼릉둔발해벽화묘와 고구려벽화묘와의 관계」, 『한국상고사학보』 16, 199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簡報」, 『考古』 2009-6.

金太順, 「渤海國社會風貌的縮影-黑龍江寧安虹邊魚場渤海墓群的考古收獲-」, 『最新中國考古大發現-中國最新20年32次考古新發現-』, 山東畫報出版社, 2002.

陶晉生 「金代中期的女真本土化運動」, 『邊疆史研究集-宋金時期』, 臺灣商務印書館, 1999,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982-1.

王禹浪·王宏北, 「女真族所建立的金上京會寧府」, 『黑龍江民族從刊』 91, 黑龍江省民族研究所, 2006.

王禹浪・孫軍,「黑龍江流域渤海墓葬的初步研究」,『哈爾濱學報』2007-11.

諸葛淨,「論遼之京城體系」,『華中建築』27,2009.

越哲夫・金太順,「黑龍江省寧安市東蓮花村渤海墓葬」,『北方文物』2003-2,2003.

韓鋒,「金上京城市建設」,『黑龍江史志』232,2010.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黑龍江寧安市虹灣魚場墓地的發掘」,『考古』1997-2.

姜成山,「渤海墳墓研究試論-虹灣魚場墳墓群の検討を中心に」,『國際學研究』1,2010.

三上次男,「金代中期における女眞文化の作興運動」,『史學雜誌』49-98,1938.